

“현대차·LG 등 스마트공장 지원 덕분에”… 中企 DX 가속화

〈디지털전환〉

대한상의,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 참여기업 생산성 28.5% 개선효과 中企 디지털전환 영향 긍정적 73%



#충남 서산에서 자동차 변속기와 DIFF CASE(자동차 바퀴의 회전비를 제어해주는 부품)를 주력으로 가공 생산하는 ㈜청명은 구멍구멍 수기와 작업자 기억에 의존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품질관리의 가장 큰 장애였다. 이에 ‘현대자동차’가 출연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해 ‘초중중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는 MES 고도화 및 POP 시스템도 마련했다. 해마다 설비를 교체하면서 지금은 자동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불량률 32% 개선, 시간당 생산량 10% 증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담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따르면 2014년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 추진 결과 참여기업의 생산성은 28.5%, 품질은 42.5%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현장 컨설턴트 49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협

력사가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정부가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구현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대기업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국내 굴직한 대기업들은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포스코 ▲두산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대기업들은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적극 임하고 있다. 대한상의도 지난해 진행된 3차년도 사업까지 대기업 출연금 175억, 정부지원금 118억 등 293억원의 사업비를 조

성해 69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또 올 4차년도에는 165억원(대기업 97억, 정부 68억)의 사업규모로 2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4년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협력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DX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반을 사회전반에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DX) 확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국지엠, 11월 판매량 86% ↑… 흑자 기대

5달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 웨보레 콜로라도, 193대 판매



한국지엠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미국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하고 있다.

올해 손익분기점 돌파와 내년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지엠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며 목표달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1월 내수 2057대, 수출 2만803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2% 증가한 것으로, 한국지엠은 5달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는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한 758대가 판매됐다. 특히 웨보레 콜로라도가 11월 한달간 총 193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227.1%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외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5.4% 증가한 총 2만803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해외 시장에서 8달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동일한 차량 플랫폼을 공

유하는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 6369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185.2% 증가세를 보였다. 카를로스 미네르트 한국지엠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웨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10월 국내 승용차 수출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웨보레 트레블스, 타호 등 웨보레의 인기 차종에 대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연말,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판매 상승세를 기록 중인 한국지엠은 올해 중 손익분기점 돌파와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창원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하는 차세대 CUV가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수출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낼 것”이라며 “올해 노사 간 입단협 역시 순조롭게 마무리돼 목표 달성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국내 배터리 3사, 세계 점유율 24.8%

전년비 6.9%p 하락

국내 배터리 3사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7%에서 24.8%로 6.9%p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기가와트시)로 2위를 지켰다. 4일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390.4GWh로 전년 동기 대비 75.4% 상승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은 두배 가까이 성장했고, BYD 등 상위권 10위에 오른 중국계 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파나소닉을 포함한 일본계 업체들은 대부

분 시장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이며 하락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53.7GWh로 2위를 유지했고, SK온은 83.2% 증가한 24.1GWh, 삼성SDI는 69% 상승한 18.9GWh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10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48GWh로 전년 동월 대비 1.7배 이상 상승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 모두 성장한 가운데, 특히 중국 시장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상당수 중국계 업체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원자재 수급난에도 28개월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계 중심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갤Z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亞 완판행진

삼성전자, 中·홍콩서 당일 완판

삼성전자의 ‘갤럭시Z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사진)’이 국내는 물론 중국·홍콩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당일 완판됐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갤럭시Z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100대를 선착순으로 판매했고, 시작 후 8초 만에 완판 반열에 올랐다. 특히 삼성닷컴, 경동, T몰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판매 시작 후 10초 만에 났다. 홍콩에서도 지난 1일 삼성닷컴 등과 주요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

했으며 모두 완판됐다. 국내에서도 이번 에디션의 인기가 뜨거웠다. 전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진행된 100대 한정판 판매의 경우 시작 후 8초 만에 물량이 동이 났다. 같은 날 오후 삼성닷컴에서 진행된 구매 응모 추첨에도 많은 수요가 몰렸다. 또 같은 날 삼성닷컴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 구매 응모 역시 완판되며 상황리 종료됐다.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갤럭시Z플립4 512기가바이트(GB) 단일 모델로 일반 모델(147만4천원)보다 78만1천원 비싼 225만5천원에 판매했다. 비싼 가



격에도 독특한 디자인과 최근 국내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패션 브랜드와 협력했다는 점에서 MZ 세대로부터 구매를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Z 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인 화이트 색상을 채택했다. 제품의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내부 회로 형상을 후면 디자인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위메이드 “현 재판 소명에 최선 다할 것”

“판결 전까지 공식논평 않겠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결 전까지 일체의 공식 논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8일이나 늦은 업비트의 입장 발표에 대해 위믹스팀은 이에 동조해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거래소협의회에 다사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거래소들은 구체적인 이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앞서 거래소들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첫 심리가 열렸고 기업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위메이드는 “다사의 결정은 불공정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이같은 위메이드 주장에 반박했다. 업비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지난달 21일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하여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며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이 헛방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빛나 기자